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 및 투자협력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

Strategies for Promoting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between Korea and Vietnam

김정호(Jeong-Ho Kim)

국립 삼척대학교 경제통상학과 교수

목 차

- | | |
|-----------------------------|----------|
| I. 서 론 | V. 결 론 |
| II.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고찰 | 참고문헌 |
| III. 한국과 베트남간 무역 및 투자현황분석 | Abstract |
| IV. 한국과 베트남간 무역 및 투자협력 증진방안 | |

Abstract

This paper suggests several strategies for promoting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 cooperation to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as follows ; For Korean government, its trade policy would be given much weight on the import from the Vietnam in the early developing stage. This import could be compensated and increased with the counter export of Korean products like the industrial goods. For Korean companies, they would make haste to invest and develop the abundant energy and natural resources in Vietnam. Their desirable strategies would be moving small scale projects into large ones, production partnerships with the foreign developed and experienced companies, and international joint ventures for using inward FDI incentives.

The long range vision and perseverance are indispensable for promoting trade and foreign direct investments between and Korea and Vietnam and both parties' win-win results and development in the end.

Key Words : Strategies for Promoting Trade and Foreign Investment, Vietnam

I. 서론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12월 공식 수교를 체결한 이후 무역 및 투자에 있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과의 총교역량이 2000년도에 20억불에서 2003년에는 30억불을 넘어섰다. 한편 투자부분에서는 한국의 동남아 투자액의 60% 이상이 베트남에 집중되면서 중국에 이은 제2위의 투자 대상국으로 자리 잡았다.

한국과 베트남은 수교 이전에도 무역과 투자가 이루어졌었으나 그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수교 이후 양국간의 경제교류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져 온 것은 무엇보다도 한국과 베트남이 가지는 경제적 특성이 크게 작용하였다.

베트남은 1인당 국민소득이 430 달러(2002년 기준) 수준밖에 안되며, 농림수산업이 주류를 이루는 후진국이다. 그러나 베트남은 총인구가 8,000만 명에 달하는 커다란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개혁·개방정책의 도입 이후 지금까지 경제가 연평균 7% 이상의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원유를 포함한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농업국가지만 풍부한 저임노동력을 기반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이 적합한 국가이다. 이렇듯 한국과 베트남간 산업발전의 단계가 다르고 보유자원에 있어서도 중복되는 점이 없기 때문에 상호 협력적 동반자관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러한 베트남이 가지는 커다란 시장규모와 높은 경제성장잠재력 그리고 풍부한 자원과 저임노동력 이외에도 북미, 아세안, 유럽시장 우회수출을 겨냥한 해외시장기지로서의 가치도 부각되고 있다. 베트남은 2001년 12월 미국과 양국간 무역협정 발효 및 ASEAN 자유무역지대 출범 등을 통한 북미 및 동남아 국가로의 우회수출 기지로서 최적지이다.

베트남의 변화된 상황과 한국의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對베트남 경제교류의 확대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의 한·베트남간의 통상협력의 부진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 및 기업은 양국간의 통상 및 경제 환경을 고려한 구체적인 통상협력 증진방안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기초단계로서 양국간 무역 및 투자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증진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고찰

1. 선행연구 검토

한국과 베트남간의 무역 및 투자협력 증진 방안과 관련해서 과거 1990년대에는 활발한 연구가 진행

되었으나, 최근 베트남의 경제 상황 변화를 고려한 연구는 없다.

그러나 최근 동남아시아 경제의 부상과 지역주의 확산으로 이들 지역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더 커질 전망이다. 이에 한국과 베트남간의 경제협력 또는 통상 관계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번순외¹⁾는 “사회주의 개방국의 초기 외국기업 진출환경 분석과 시사점”에서는 중국, 베트남, 폴란드, 동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는데 특히 베트남과 관련해서는 체제개방의 주요 내용과 의의, 기업진출 환경, 외국기업의 투자 진출, 외국기업 진출에 대한 시사점 등을 언급하면서 사회주의 개방국의 초기 외국기업 진출환경 분석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²⁾는 “최근 베트남 경제현황과 수출기업의 평가”에서 7%의 높은 성장세 유지 및 미국과의 무역협정 발효, AFTA(아세안자유무역지대)역내 실효세율 인하(2003년부터 시행) 등으로 베트남이 우리의 수출 및 투자기지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베트남 자체시장의 수요증가가 현지투자기업을 통한 우회수출의 기지로서 활용을 들었다. 또한 유망수출품목으로는 기계류(자동차, 석유화학기계, 건설광산기계 등), 직물·의류, 전자제품 및 전자부품, 신발 등을 제시하였으며, 대베트남 주요경쟁국으로는 중국, 대만, 동남아국가로 지적하면서 베트남 직접투자도 러시를 이룰 것으로 전망하였다.

한편 향후 대베트남 수출증가를 위해서 그 동안 저조한 성장 및 대외지급능력 하락으로 소홀히 했던 베트남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 및 정부의 재인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가격에 민감하면서도 브랜드 선호도가 높은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한류열풍을 이용한 적극적 스타마케팅전략 강화, 현지 시장상황에 따른 진출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한편, 단기적으로 미국과의 무역협정 발효로 혜택을 보는 섬유, 신발 등의 진출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원개발과 활용, 인프라 구축 등 자본집약분야 진출을 모색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³⁾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과 투자관계”에서 최근의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교역현황,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투자동향을 분석하면서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과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우리 기업의 대 베트남 진출시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있다.

정병우⁴⁾ “베트남의 경제구조, 무역과 투자환경 : 현황 및 전망”에서 최근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경제구조의 변화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의 대 베트남 진출과 관련하여 무역 및 투자환경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들을 지적하였다. 특히 베트남의 경제개혁정책과 이에 따른 경제 전반적인 구조변화에 대해 설명하면서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그리고 대외개발정책 등에 대해 검토하며 베트남의 무역구조 및 외국인 투자환경을 분석하였다.

최봉현⁵⁾은 “베트남의 산업과 한·베트남 경제협력”에서 경제부흥을 위하여 1970년대말 부분적 자유

1) 박번순외, 「사회주의 개방국의 초기 외국기업 진출환경 분석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1. 5.

2)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최근 베트남 경제현황과 수출기업의 평가」, 2002. 5.

3)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과 투자관계」, 2002. 10. 18.

4) 정병우, 「베트남의 경제구조, 무역과 투자환경 : 현황 및 전망」, 1996.

화 정책을 비롯한 신 경제정책을 추진한 성공적인 베트남의 개혁정책의 과정과 그 성과, 문제점들을 개관한 다음 경제개혁의 전개과정을 역사적으로 부문별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고 경제개혁과정에서 베트남에 경제에 독특한 경제개혁 정책의 특징과 성과를 다른 사회주의 경제의 개혁과 비교하여 하고자 하였다.

David Dapice는⁶⁾ Vietnam's Economy : Success Story or Weird Dualism에서 베트남경제는 1998년 2002년간의 실적을 토대로 분석결과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베트남 경제의 이면에는 위기와 기회의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베트남 경제의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기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2. 이론적 고찰

1) 베트남 경제 최근 현황과 전망

(1) 경제성장

베트남의 경제성장 추이를 <표 2-1>에서 보면 2002년 7.1%, 2003년 7.2% 성장에 이어 2004에도 7.1%로 지속적으로 7.5~8%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베트남정부는 2005년 경제성장도 7%대 성장을 전망하고 있으며, 아울러 2001-2005년간 평균 7.5% 성장을 목표치로 설정한 바 있다. 한편, 성장의 주요 원동력은 산업생산과 수출로 보고 있다.

<표 2-1> 베트남의 연도별 경제성장 추이 (전년동기대비, %)

	2001	2002	2003				2004		
			연간	1/4	2/4	3/4	4/4	1/4	2/4
GDP 성장률	6.9	7.1	7.2	6.8	6.5	8.1	7.5	7.0	7.1
(민간소비)	4.5	7.6	7.4	—	—	—	—	—	—
(고정자본형성)	10.7	12.9	14.2	—	—	—	—	—	—
산업생산	14.6	14.8	16.0	18.0	17.4	12.9	18.2	17.3	21.0
소매판매	11.3	14.5	10.5	11.8	7.6	14.2	21.6	16.3	24.1
소비자물가	-0.4	3.8	3.1	3.8	3.5	2.8	2.5	4.3	7.2
수출	3.8	11.2	19.0	46.4	23.4	12.6	3.1	18.4	22.9
수입	3.7	21.7	26.7	44.6	38.0	23.1	9.3	17.1	16.3
무역수지1)	-11.9	-30.3	-51.2	-7.8	-15.9	-11.0	-16.5	-8.6	-15.1

자료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03. 4.

5) 최봉현, 『베트남의 산업과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연구원, 1994.

6) David Dapice, Vietnam's Economy : Success Story or Weird Dualism, 2003.

(2) 해외투자 유입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투자유입을 위해서는 경영환경 개선이 관건이다. 베트남의 경우는 경제개혁 조치의 완만함, 정부정책의 예측불가능 등으로 인해 경영환경은 그다지 양호하지 않다는 견해가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5년 상반기 7.6%의 GDP 성장률을 기록한 베트남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인가기준)도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투자기획부(MPI)에 따르면, 신규 FDI는 323건, 18억 6,76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금액기준으로는 전년 동기대비 2.3배나 증가한 것이다.

(3) WTO 가입

베트남 정부는 2005년까지 WTO에 가입한다는 목표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베트남의 WTO 가입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단기적으로 비관적인 의견이 다수이다.⁷⁾

그러나 베트남 정부와 양자협상을 전개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은 동 목표달성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의사를 보이고 있다. 즉, 주요 공관 담당자들은 베트남 지도층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제도개선 작업이 상당히 더디어 현재로서는 WTO 가입기준 달성이 요원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4) 교역수지 및 외채현황

대외무역은 올해 상반기중 수출 144억 4000만달러, 수입 180억달러로 대외무역규모가 324억4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대비 19.9%가 증가했다.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7.4% 증가에 그친 반면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8% 증가했다. 상반기 수출이 다소 부진한 이유는 섬유 및 의류 부문이 미국 시장에서의 부진으로 20억달러 수출에 그쳐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에 그쳤다. 또한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커피, 후추, 고무 등 고 부가가치 농산물 수출이 감소 또는 정체를 겪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수입초과 구조 및 무역수지 적자 문제는 FDI 유입, 해외송금증가로 인해 별반 심각한 BOP 문제를 야기하지 않을 전망이다. 의견이 주종이다.

현재 IMF는 주재국 중앙은행의 투명성 결여를 문제삼아 베트남에 차관공여를 잠정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베트남 정부는 IMF 차관유치를 절실하게 요구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베트남 대외채무는 2003년말 현재 177억불 정보(GDP의 47%)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대체로 안정적인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견이지만 무역적자 및 재정적자의 누증을 심각한 문제로 보는 시각도 있다.

7) 무역협회는 "한국 상품은 베트남에서 아세안국가에 비해 높은 관세를 적용받아 가격경쟁력에서 열세로 작용,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무역일보, 베트남의 WTO가입 관련 시장 개방 검토 의견, 2004, 3.9).

2) 베트남 경제의 특성 및 통상협력 필요성

(1) 큰 시장규모와 저임노동력 구조

베트남은 세계에서 13번째로 인구가 많은 8,000만명 수준으로 비교적 큰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43백만 노동인구 중 45%가 35세 미만으로 미래발전형의 인력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베트남의 평균 인구증가율은 1.4%인데 반해 노동인구의 증가율은 3.5~4%에 달하며, 문맹률이 10% 미만이고 근면성과 손재주가 뛰어나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로 모든 회사는 노조를 설립해야 하지만 강경투쟁의 노조가 아니라 사측에 매우 협력적인 노조로 베트남 노동법을 준수하고 근로자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다면 노조 문제가 기업경영에 큰 어려움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2) 선진국 및 ASEAN국가 진출기지

2001년 미-베트남 무역협정체결 이후 대미 우회수출 기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베트남이 ASEAN 자유무역협정(AFTA)에 가입하면서 역내 경제블럭화가 가속화되고 아세안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있는데 따른 대응전략으로 베트남을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기업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ASEAN 국가들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대부분 품목의 역내 수입관세를 0%에서 최대 5%이하로 낮추는 역내관세인하계획을 진행중으로 역내교역시 관세절감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3) 차이나 리스크 대안으로 부상

‘세계의 공장’ 중국에 전세계의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이 국가적, 경제적 위험이 발생하여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차이나 리스크이다. 이러한 차이나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데, 그 최적지로 베트남이 부상하고 있다.

대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작업시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통상 3개처 이상으로 분할하여 아웃소싱을 실행하는데, 현재는 아웃소싱 대상처 모두가 가격경쟁력이 우수한 중국으로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국의 국가적, 경제적 위험이 발생할 경우 당초 위험을 회피하겠다는 분할 아웃소싱의 의미가 사라지기 때문에 중국의 다른 경쟁력 있는 국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유력한 대상처로 베트남이 주목받고 있다.

(4) 풍부한 천연자원의 보고

원유, 석탄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농업에 적합한 기후로 인해 세계 3위의 쌀 수출국, 2위의 커피 수출국으로 세계적인 농업국이다. 3,260km의 해안과 170만 헥타아르에 달하는 양식

이 가능한 바다 등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수산업에서도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5) 한류의 확산

베트남은 어른을 공경하는 유교문화를 가지고 있고 몽골인종이며, 쌀을 주식으로 하는 등 한국문화와 유사한 점이 많다. 또한 최근 한류로 통칭되는 한국 드라마와 영화의 선풍적인 인기로 말미암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으며, 실제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마케팅으로 이어지고 있다.

Ⅲ. 한국과 베트남간 무역 및 투자현황분석

1. 한국과 베트남간 무역현황 분석

1) 한·베트남 수출입현황

베트남은 우리나라 수출과 수입에서 각각 19위, 38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04년 9월중 대베트남 수출, 수입은 우리나라 총 수출, 총수입이 각각 23.3%, 38.2%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표 3-1〉 한-베트남 교역현황

(백만달러, %)

구 분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9
총교역	1,831.2 (18.6)	1,841.7 (0.6)	1,545.2 (-16.1)	1,709.4 (10.6)	2,008.5 (17.5)	2,117.4 (5.4)	2,710.5 (28.0)	3,071.9 (13.3)	2,790.0 (25.8)
수 출	1,599.1 (18.4)	1,603.1 (0.3)	1,361.4 (-15.1)	1,445.2 (6.2)	1,686.0 (16.7)	1,731.7 (2.7)	2,240.2 (29.4)	2,561.2 (14.3)	2,282.0 (23.3)
수 입	232.0 (19.9)	238.6 (2.8)	183.8 (-22.9)	264.2 (43.7)	322.4 (22.0)	385.8 (19.6)	470.3 (21.9)	510.7 (8.6)	508.0 (38.2)
무역수지	1,367.1	1,364.6	1,177.6	1,180.9	1,363.6	1,345.9	1,769.9	2,050.5	1,774.0

*자료 : 한국무역협회, ()는 전년대비 증가율

품목별로 보면 수출은 중화학, 식물 등이 수입은 1차산품이 주종을 이룬다. 주요 수출품으로는 자동차, 석유제품, 식물 등이며, 주요 수입품으로는 원유, 연체동물, 신발, 수산가공품, 곡실류 등이다.

〈표 3-2〉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10대수출입 품목 (2004년 9월)

수 출				수 입			
품 목	금액	증감율	비중	품 목	금액	증감율	비중
자동차	187.8	-0.6	8.2	원유	51.4	-	10.1
석유제품	153.0	107.8	6.7	연체동물	42.1	25.3	8.3
기타직물	148.5	29.5	6.5	신발	30.4	33.7	6.0
편직물	145.6	10.5	6.4	수산가공품	28.7	-0.1	5.7
합성수지	133.5	50.5	5.9	곡실류	24.9	90.5	4.9
인조장섬유직물	106.9	26.7	4.7	의류	23.6	-8.5	4.6
섬유 및 화학기계	79.3	-25.3	3.5	석탄	20.8	124.6	4.1
철강관	78.6	24.7	3.4	기호식품	20.8	0.1	4.1
가죽	75.0	20.8	3.3	기타섬유제품	19.9	22.8	3.9
무선통신기기	72.3	62.7	3.2	임산부산물	19.4	29.6	3.8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			51.7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			55.5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對 베트남 수출입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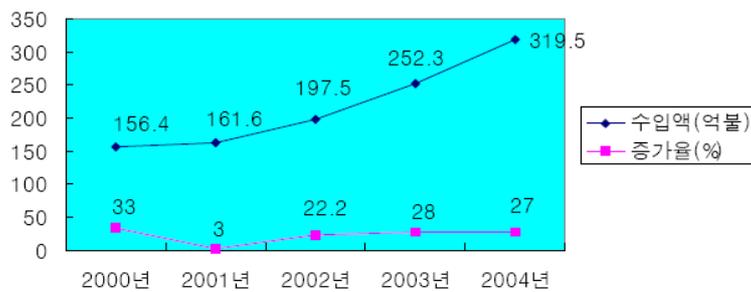
(1) 베트남 수입시장 동향

베트남 수입시장은 지난 3년간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보였다. 2000년도 156억불에 불과했던 수입시장 규모가 2003년에는 252억불로 성장하였으며, 2004년에는 사상 최초로 319.5억불을 기록하였다.

2004년도 베트남의 수입규모를 볼 때 베트남 수입시장은 5년 만에 2배 이상으로 성장하였으며 최초로 300억불을 규모를 넘었으며, 그 성장 폭은 가히 놀랄만 하다.

특히 2003년도의 28% 증가에 이어 2004년도에도 27%의 고속 성장세를 보임으로써 베트남 수입시장 규모는 경제발전 속도와 더불어 향후 수년간 급속히 팽창할 수 있는 잠재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 베트남 수입시장 변화추이



(2) 한국의 대 베트남 수출현황

베트남 수입시장 확대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수출도 수년간 양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베트남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수출은 22.9억 불이었으며, 2003년도는 26.2억불로 전년대비 15%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더욱 2004년도의 경우 33.3억 불을 수출하여 27%의 수출 신장률을 보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2004년 기준으로 대베트남 수출국 중 5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1위국인 중국(44.6억 불)을 제외한 대만(37억불), 싱가포르(36.2억불), 일본 (35.5억불) 등 2위~4위국들과는 약 3~4억불 이내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국가별 대 베트남 수출현황

순 위	국 가 명	2002	2003	2004
1	대만	2,536.9	2,915.8	3,698
2	싱가폴	2,534.3	2,878.2	3,618.5
3	일본	2,509.6	2,994	3,552.6
4	한국	2,285.5	2,624.4	3,328.4
5	중국	2,158.8	3,122.3	4,456.5
11	미국	457.5	1,144.2	1,127.4
:	:	:	:	:
	총계	19,745.6	25,226.9	31,953.9

자료 : 베트남 세관, 2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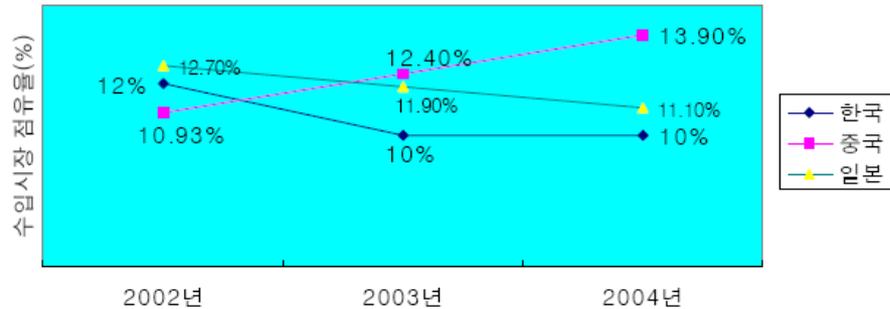
(3) 주요 경쟁국별 베트남 수입시장 점유율분석

베트남 수출 상위 5개국의 시장점유율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중국의 시장점유율은 대폭 상승한 반면 일본은 하락하였고 한국은 하락 후 정체를 보이고 있어 좀더 활발한 해외마케팅 노력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은 2002년도 10.93%의 시장점유율을 보였으나, 2003년과 2004년도 2년간 각각 12.4% 및 13.9%로 시장점유율이 높아져 점차 시장지배력이 강화되고 있다. 반면, 일본은 2002년도 12.7%의 시장점유율을 보이다가 2003년에 11.9%, 2004년에 11.1%로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인 하락 추세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은 절대 수출액에 있어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2년도 12%의 수입시장 점유율을 보였으나 2003년 및 2004년도 양해년도에는 10%로 시장점유율 하락세를 보여 베트남 수입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시장에서의 시장 지배력이 한·중·일 3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3-2] 한·중·일 대 베트남 시장점유율



또한 기타 경쟁국들의 시장점유율을 비교해보면, 대만의 경우 2003년도 11.6%의 시장점유율이 2004년도에는 12%로 향상되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2003년도 11.1%에서 2004년도도 비슷한 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태국의 경우 2003년도 5%의 시장 점유율이 2004년도에는 6%로 증가하여 시장지배력이 확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 시장점유율 변동 현황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는 중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보다는 시장지배력이 떨어지나 태국, 미국, 말레이시아 등에 비해서는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중, 일, 대만, 싱가포르 등 5개국 이 10%이상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이며 상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나머지 국가들이 5-6%대의 시장 점유율로 그 뒤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무역현황분석의 시사점

상기 분석결과 베트남 시장에서의 부정적인 면을 우선 살펴보면, 첫째, 베트남 수입시장 규모 증가 속도에 비해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수출증가 속도가 뒤쳐지고 있으며, 둘째,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수출의 양적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장점유율은 하향, 정체되어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고 있고, 셋째, 베트남 수입시장에서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프랑스, 러시아 등 6개국에 대해 우리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넷째, 베트남 10대 수입 주종품목 중 우리의 수출주종 품목인 자동차 부품, 섬유 및 봉제 분야마저도 중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경쟁국에 대해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다섯째, 의약품, 오토바이 부품 등 일부 품목의 수출이 극히 부진하며 컴퓨터 및 부품의 경쟁력은 거의 상실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베트남 수입시장이 2003년부터 22%, 28%, 27%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수출은 21%, 15%, 27%로 수입시장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27%(2004년도 기준)라는 양적인 수출 증가율에도 불구하고 수입시장 점유율은 10%대로 2년 전에 비해 하향 정체를 보이고 있어 베트남 수입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시장지배력이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베트남 총 수입시장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는 15개 주요 수출국 중에서 중국,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프랑스, 러시아 등 6개국의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베트남 총 수입의 약 56%를 차지하는 10대 수입 품목 중에서 우리의 수출주종 품목인 자동차 부품, 섬유봉제 분야에서도 우리나라는 중국, 대만,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한 10대 수입 품목 중 의약품, 오토바이 부품, 컴퓨터 및 부품 등 일부 품목들은 수출실적이 극히 미미하고 시장점유율도 1% 내외에 그쳐 시장지배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이다.

한편,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첫째, 베트남 수입시장에서 일본, 싱가포르, 홍콩, 미국, 인도네시아, 이태리, 독일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 둘째, 기계 및 부품, 석유화학, 섬유봉제 등 수입규모가 큰 품목에서의 시장점유율이 높아 전체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약화 속도를 지연시켜 주고 있다. 셋째, 우리의 대 베트남 투자진출이 수년간 2위를 유지하고 있어 향후 수출증가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넷째, 한류에 힘입은 국가 이미지 및 한국상품 이미지가 높아 마케팅 활동 전개시 경쟁국 대비 높은 마케팅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2. 한국·베트남간 투자현황 분석

1) 對 베트남 외국인 투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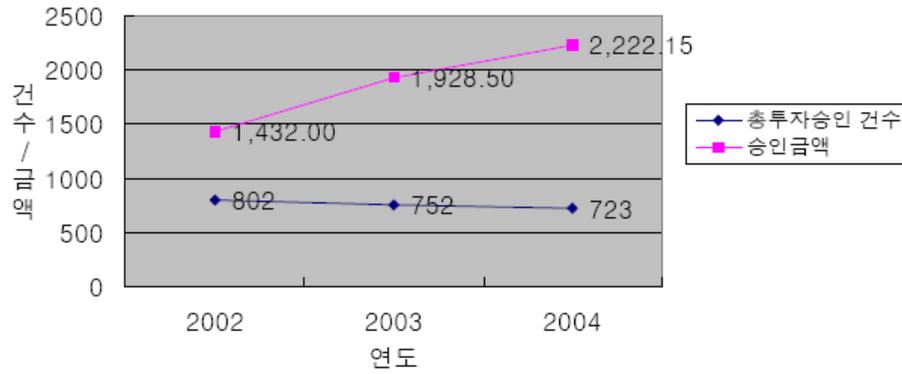
외국인 투자유치가 시작된 1988년 이후 2004년 12월 말까지 총 6,116건 468억 4천 7백만불의 외국인 직접투자 프로젝트가 승인되었다. 또한 2003년에는 39개국이 752건의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였으며 2004년에는 723건의 프로젝트에 투자하였다.

〈표 3-4〉 베트남의 연도별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 건, US\$백만)

연도	승인건	취소건	유효건	승인금액	취소금액	재투자액	유효금액
1988-1990	214	8	206	1,582	26.3	0.3	3,690.8
1991-1995	1,397	302	1,095	16,244	1,620.6	2,132.0	2,629.4
1996	365	58	307	8,640	1,287.1	788.0	9,318.9
1997	348	91	257	4,649	568.4	1,173.0	4,818.5
1998	275	103	172	3,897	2,447.1	884.0	4,020.0
1999	311	88	223	1,586	785.1	629.0	1,697.0
2000	379	115	264	2,018	1,796.5	476.0	2,019.1
2001	550	94	456	2,592	1,440.8	632.0	2,464.5
2002	802	114	688	1,621	1,138.0	1,100.0	1,432.0
2003	752	96	656	1,928	1,784.0	1,150.0	1,653.6
2004	723	-	-	2,090	-	1,930.0	-
총 계	6,116	1,006	5,110	46,847	12,893.9	10,894	45,776

자료 : 베트남 투자계획부, 2005.

[그림 3-3] 최근 베트남 투자동향 (단위 : 건, US\$백만)



자료 : 베트남 투자계획국

주요국별 투자현황을 보면, 2004년도말 기준 국가별 투자 금액기준으로 싱가포르(80억불), 대만(73억불), 일본(54억불), 한국(48억불/4위), 홍콩(32억불) 순이며 투자건수로는 대만(1,262건), 한국(847건/2위), 일본(493건), 싱가포르(335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프로젝트 규모를 보면 싱가포르가 평균 프로젝트 금액이 2,384만불로 가장 크고 그 뒤를 일본(1,092만불), 홍콩(990만불), 대만(578만불), 한국(565만불)이 뒤를 잇고 있다. 이는 싱가포르가 호텔, 공단개발 등 부동산 개발관련 투자가 많은 반면 일본, 한국, 대만의 경우 경공업 중심의 제조업분야의 투자가 주종을 이루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평균투자금액이 한국, 대만보다 큰 이유는 일본의 경우 자동차, 전기전자 등 자본집약적 제조부문 비중이 높은 반면 한국, 대만은 섬유, 봉제 등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으로 투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표 3-5> 對베트남 주요국별 투자현황 (단위 : US\$백만, 건)

순 위	국 가	신청액	실행액	건 수
1	싱가포르	7,988.31	3,381.14	335
2	대만	7,290.32	3,145.84	1,262
3	일본	5,420.62	4,253.31	493
4	한국	4,789.35	2,888.83	847
5	홍콩	3,228.23	1,941.83	326
6	프랑스	2,153.11	1,060.72	142
7	영국령버진군도	2,426.42	1,141.28	212
8	네덜란드	1,835.26	1,974.73	53

순 위	국 가	신청액	실행액	건 수
9	태국	1,384.85	756.77	116
10	말레이시아	1,336.60	811.44	164
11	영국	1,217.53	600.24	62
12	미국	1,291.36	729.93	215
13	스위스	664.42	518.95	28
	투자 총계	45,917.5	26,772.73	5,130

자료 : 베트남 투자계획부(1988-2004년 누계기준).

2004년 외국인 투자 신청건수는 총 723건, 22.2억불에 달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총 170건 3억8천만 불이 승인되어 2004년도 외국인 투자국 중 대만에 이어 제2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3-6> 2004년 對베트남 주요국별 투자현황 (단위 : US\$백만, 건)

순 위	국 가	신청액	실행액	건 수
1	대만	453.45	181.21	156
2	한국	377.89	182.08	170
3	일본	224.35	117.01	61
4	홍콩	198.12	86.02	38
5	영국령버진군도	176.69	82.57	25
6	캐나다	154.96	46.77	12
7	싱가포르	123.88	66.71	47
8	말레이시아	83.80	43.50	26
9	중국	78.87	48.88	67
10	미국	74.94	41.67	30
11	호주	38.43	16.72	15
12	러시아	28.37	12.53	5
	총 계	2,222.15	1,016.69	723

자료 : 베트남 투자계획부

2) 한국의 對 베트남 투자현황

우리 나라의 대 베트남 투자는 1992년 한주통상이 최초로 공식투자한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투자금액면에서 베트남의 4대 투자국이다. 베트남 기획투자부에 따르면 1988-2001년 중 우리 나라의 대베트

남투자는 32.7억달러로 싱가포르(68.8억달러), 대만(54.2억달러), 일본(40.7억달러)에 이어 4대 투자국이다. 2001년중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투자는 총 74건의 106백만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비 41% 증가하였다.

〈표 3-7〉 우리의 對베트남 투자추이(총신고기준) (단위 : 건, 백만불)

구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9	누계('04.9)
건수	39	29	10	18	30	55	112	101	91	640
금액	200.8	183.5	107.6	62.9	98.2	97.9	374.8	720.0	307.4	2,764.8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우리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분야는 섬유, 봉제의류, 신발, 가방, 모자 등 노동집약적 부문이 증가되고 있으나, 이밖에 도로, 항만, 조선 등을 비롯, 최근에는 CDMA 기술 등 정보통신에 이르기 까지 다양해지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투자가 약 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3-8〉 對베트남의 업종별 투자('04.9, 총신고누계기준) (단위 : 건, 백만불)

구분	섬유 의복	신발 가죽	1차 금속	조립 금속	전자통신 장비	수송 기계	제조업 기타	광업	숙박음 식점업	부동산 및 서비스업	기타
건수	202	68	21	29	24	18	191	5	6	34	41
금액	443.1	165.4	73.9	56.4	272.4	87.6	284.5	838.1	158.5	283.4	101.4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표 3-9〉 한국기업의 대베트남 지역별 투자동향

구분	투자지역	투자건수
남부	호치민시	47건
	빈주영성	28건
	동나이성	22건
북부	푸투우성	15건
	하노이시	8건
	하이퐁시	3건
기타	-	48건

자료 : 베트남 기획투자부;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로드맵」, 2004.10.

우리기업의 대베트남 투자지역을 살펴보면, 2003년도 대베트남 투자 중 총 97건(56.7%)이 호치민시를 중심으로 한 빈주영성, 동나이성 등 남부지역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남부지역이 북부지역에 비해 물류시설과 인프라가 잘 정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질 높은 노동력 확보, 기업간 정보 교환, 비즈니스 환경 등에 있어 북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⁸⁾

3) 베트남 외국인 투자 전망

2005년 상반기 베트남에 대한 FDI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를 가져온 주된 원인은 WTO가입을 앞두고 법과 제도의 정비 등 투자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베트남은 투자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베트남의 투자인센티브는 우선 법인세를 적용, 법인세를 감면 및 감면기간, 투자공정자산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송금세 면제 등이 있다.

법인세를 우대조치는 외국인투자회사나 베트남 내국회사나 29%의 동등한 법인세율이 적용되며, 투자성격, 투자규모, 투자지역에 따라 20%, 15%, 10%의 법인세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입관세 면제는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생산기계, 설비 및 부품 일체에 대해 면세통관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생산용 물류시스템, 공장건설용 건자재(베트남내 미생산 자재)에 대해서도 수입관세가 면제된다.

이러한 베트남 정부의 수입인센티브 정책으로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미국과 일본 등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투자도 대폭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IV. 한국과 베트남간 무역 및 투자협력 증진방안

1. 무역협력 증진방안

1) 무역불균형 시정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대베트남 무역흑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베트남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불균형상태가 지속된다면 양국간의 무역협력의 확대에 있어서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한-베트남간 교역의 확대 및 균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요구중 하나인 열대과일 수입, 농수산물 관세인하 등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가 진행중에 있다. 우리나라의 대 베트남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추세에 있다. 그러므로 무역역조 시정을 위한 정부

8) KOTRA “베트남 투자설명회”, 1997, p.178.

간 협력 확대하고 대미 섬유쿼타 관련 모니터링 및 대 정부 교섭강화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2) 한-베트남간 포괄적 동반자관계 내실화를 통한 실질협력관계 강화

한-베트남 수교 10주년을 맞아 2001년 8월 르엉 베트남 국가주석 방한시 합의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분야를 경제·통상 분야는 물론 정치·군사·문화 등으로 확대하였다.

한편, 한-베트남간 정보·통신분야 협력증진을 도모하고 우리 기업의 CDMA 이동전화 시장진출 확대 기반조성을 위해 우리기업의 성공적인 CDMA 상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베트남 정부의 지원 확보, 양국간 자원개발 협력사업에 대한 베트남측의 협조 확보, 수출미수금 문제 등 우리기업의 통상 현안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베트남측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여 실질협력관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3) 투자확대 및 진출기업지원 및 ODA 지원을 통한 통상협력 기반구축

대미 섬유쿼타 동향 모니터링 및 대정부 교섭 강화와 무역, 조세, 노동 등 투자관련 애로사항 수렴 및 해결 노력 강화하고 대 베트남 기업진출 안내서 개정하여 진출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IT 대학 설립 추진 등 ODA 지원을 통한 통상협력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2. 투자협력 증진방안

1) 한-베트남 투자보장 협정을 통한 증진방안

1993년 체결된 투자보장 협정을 10년만에 개정(2003년 9월)하여 우리 투자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의 일반적보장 규정, 새로운 제한조치는 도입 불허, 투자자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분쟁해결 절차 명시, 투자국에 의한 협정상 의무 위반 및 손해 발생시 분쟁해결 절차 이용, 법령의 개정을 신속하게 제공할 의무 부여(예측 가능성 제고), 우리기업의 투자애로 사항을 베트남측에 공식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양국간 투자협력 위원회 설치)하였다.⁹⁾

2) 법인세법 개정을 통한 증진방안

법인세의 기본세율 28%로 상향조정(내외국 기업 동일)하고(2004년 1월 1일 이전 투자허가를 받은 경우, 중진 세율(25%) 적용), 우대세율 10, 15, 20%은 그대로 유지(단, 적용 조건은 강화됨), 이익 송금세 폐지(2004년 시행규칙 발표 예정), 이익의 재투자분에 대한 법인세 환급조치 폐지(단, 재투자시 제한적 조건하에서 법인세 감면) 등 법인세의 개정을 통한 증진방안이 이루어져야 한다.

9) 남기만, 「한-베 경제협력 현황」,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 2004.3.26

3) 소득세법의 개정을 통한 증진방안

소득세 면세 기준 인상(현행 3백만동/월(세전) 5백만동/월), 외국인 면세 기준 : 800만동(현행 유지), 최고세율 인하(현행 50%에서 40%), 비정기소득을 5% 소득세율 적용로 적용하는 등 소득세법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4) 경쟁법 제정을 통한 증진방안

경쟁법의 제정은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 개입 축소 및 불공정 기업 관행 제한함으로써 적용 대상을 내국기업, 외국투자기업 및 개인과 모든 기업 유관 기관등으로 함으로써 거래 행태, 경쟁제한적 요소, 독점적 지위 또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및 기타 불공정 행위, 특히, 정부와 국영기업의 불공정한 관행(malpractice)과 피라미드 판매 등도 규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3. 기업입장에서 증진방안

1) 신 마케팅 전략 도입

과거 ASEAN 국가에 진출한 개별투자기업들이 투자국의 보호막 아래 생산하여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출하였다. 향후에는 국가별 보호막이 제거되어 베트남 내 생산제품을 여타 아세안국가로 수출하는 적극적 마케팅 노력 전개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ASEAN 전체를 내수시장으로 보는 신 마케팅 전략 도입이 필요하다. 베트남을 미국, 유럽 등 제3국 우회수출기지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베트남의 내수시장 확대(내수시장+ASEAN 시장)에 따른 새로운 마케팅 개념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ASEAN내 동종기업과의 경쟁치열(Winner takes all), 경쟁력 제고에 걸림돌이 되는 경영 비효율을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ASEAN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취급 품목에 대한 생산국, 제조업체, 경쟁우위 분야, 원자재 공급선 등 심층조사를 강화하여 진출기업간 정보 교환 확대를 통한 마케팅 기회를 창출하여야 한다.

2) ASEAN 회원국내 부품 아웃소싱 확대

AFTA 본격화에 따라 역내 관세율 인하가 가속화될 경우에 대비 아세안 전체를 대상으로 최적의 원자재 및 부품 아웃소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략적 고려사항으로는 ASEAN 원산지 적용 40% 규정 충족, 베트남 내 부품산업 미흡 문제점 보완 등이다.

3) KOTRA의 국내기업 지원 기능 적극 활용

종전에는 KOTRA의 주요 지원대상이 한국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기업이 위주였으나 향후로는 해외진

출기업의 제3국 시장개척 활용 확대 추세이다. 전시회참가, 해외세일즈출장지원, 조사대행, 지사화사업, 시장개척단 파견 등 KOTRA의 해외시장개척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4) 장기적인 ASEAN 투자 전략 지도 수립

산업별, 품목별로 아세안 역내국가중 투자효율이 가장 높은 국가를 선택, 집중투자하고 아세안 전체를 목표시장으로 공략하는 아세안 투자 전략지도 수립, 시행하여 ASEAN 회원국별, 산업별 투자인센티브, 원가, 인프라 등을 비교, 해외 투자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또한 ASEAN 지역에 대한 다국적기업의 투자확대에 대비하여야 한다.

5) 진출기업 애로사항 조사를 통한 제조환경 개선추진

ASEAN 역내 경쟁심화에 대비 제조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확보 추진하여, 정기적인 진출기업 심층 조사를 통한 애로사항 파악 및 베트남 정부에 개선필요 사항 전달하고, 베트남을 ASEAN내 최고 경쟁력 보유 생산기지로 유도하기 위한 진출기업-베트남 정부간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V. 결 론

베트남은 평균 7%의 높은 성장세 유지 및 미국과의 무역협정 발효, AFTA(아세안자유무역지대)역내 실효세율 인하(2003년부터 시행) 등으로 베트남이 우리의 수출 및 투자기지로 다시 부각되고 있다. 세계은행은 베트남이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로 연간 8억달러 이상의 수출효과를 주고 특히 섬유류, 신발, 봉제류의 대미 수출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역협정이 실제 발효된 금년 1, 2월중 베트남의 대미 수출은 전년동월비 각각 74.1%, 75.2% 늘어났으며, 특히 섬유류, 가방, 신발류 등은 전년 동기간에 비해 2배이상 증가하였다.

베트남의 변화된 상황과 한국의 최근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對베트남 경제교류의 확대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수년간의 한·베트남간의 통상협력의 부진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더욱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망을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 및 기업은 양국간의 통상 및 경제환경을 고려한 다음 무역 및 투자협력 증진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그 동안 저조한 성장 및 대외지급능력 하락으로 소홀히 했던 베트남시장에 대한 우리 기업 및 정부의 재인식을 통해 지속적인 무역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둘째, 한-베트남간 포괄적 동반자관계를 형성하여 실질적 협력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투자확대 및 진출기업에 대한 지원과 ODA 지원을

활성화하여 통상협력의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대베트남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보장 협정을 통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한-베트남간 협정을 통해 각종 투자 인센티브를 유도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 관세청 「베트남의 투자 및 관세관련 법규집」, 1998, 3.
- 남기만, 「한-베 경제협력 현황」, 주 베트남 한국 대사관, 2004. 3. 26.
- 대한상공회의소, 「한-베트남 투자 및 ODA추진 방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7. 12
- 무역일보, 베트남의 WTO가입 관련 시장 개방 검토 의견, 2004, 3.9.
- 박번순외, 「사회주의 개방국가의 초기 외국기업 진출환경 분석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1. 5.
- 정병우, 「베트남의 경제구조」, 무역과 투자환경 : 현황 및 전망, 1996.
- 최봉현, 「베트남의 산업과 한-베트남 경제협력」, 산업연구원, 1994.
-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 「최근 베트남 경제현황과 수출기업의 평가」, 2002. 5.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과 베트남의 무역과 투자관계」, 2002, 10. 18.
- KOTRA, 「베트남 투자설명회」, 1997.
- KOTRA, 「베트남 비즈니스 로드맵」, 2004. 10.
- David Dapice, *Vietnam's Economy : Success Story or Weird Dualism*, 2003.
- IMF, *International Financial Statistics*, 2003. 4.
- The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of Vietnam. Vietnam Commerce & Industry. Vol. 17 ~ 18. December 1996.
- Curry. Jr., Robert L., "Economic Growth and Transformation : Vietnam's Challenge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ASEAN Economic Bulletin* 13. no. 2. (December 1996) : 229-239.
- Dun & Bradstreet International. Dun & bradstreet Country Report Vietnam. 1996.
- Goldstone. Amthony. VIETNAM.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Limited. 1996.
- Institute of World Economy. Vietnam's Economic Renovation and Foreign Economic Policies. 1995.